

입고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 웰빙의 벗 - 웰빙섬유



정성훈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웰빙 관련 섬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웰빙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건전한 문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요즘 매사에 짜증나시죠? 그게 무덤고 후줄끈한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경기 탓일까요? 어쨌든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일상 중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설악산 깊은 산중에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그리고 기암괴석들,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어때요? 조금은 나아지셨나요? 웰빙이래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웰빙이래요.

### 건강한 삶의 위한 라이프 스타일

처음 웰빙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말인가? 또 무슨 장사를 하려고 별희안한 말을 만들어 냈구나 싶었죠. 말인 즉, 웰빙은 영어로는 well-being 이라 쓰더군요. well 은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란 뜻이고, being 은 명사로서 존재, 생명, 인생 등의 뜻이니, 그렇구나, well-being은 다름 아닌 ‘건강한 인생’ 즉, ‘행복, 안녕, 복지, 복리’로 해석되더군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식탁에 주를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는군요.

### 삼림욕 효과 섬유, 웰빙 세계로

이런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게 날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웰빙이란 이름으로 시

장에 나오고 있으니 과히 “웰빙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의복을 포함한 섬유 제품들이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것들이 다 나와 있더군요. 최근 개발된 웰빙 관련 섬유제품들을 살펴보면 무려 650여 가지의 박테리아를 살균함으로써 청결한 위생 생활을 보장한다는 항균섬유, 냄새 특히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방취·소취섬유, 좁이나 진드기 등을 퇴치하여 주거환경까지 쾌적하게 한다는 방충섬유, 음이온을 방출하여 마치 삼림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음이온섬유 등이 있어 우리를 웰빙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네요.

###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더 나아가면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 내 호르몬 계통의 균형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원적외선방출섬유, 자외선을 차단하여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자외선차단섬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자파차단섬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게 해 준다는

항온섬유 등도 있더군요.

또한 땀은 배출하면서도 빗물은 완벽하게 방수된다는 투습 방수섬유, 우유 기름 등 각종 오염물이 묻지 않는다는 방오발유섬유, 불이 붙지 않는다는 방염섬유, 때가 묻지 않으나 혹시 때가 묻어도

물세탁만으로도 쉽게 제거된다는 셀프 크리닝 섬유 등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는군요. 어찌 섬유제품뿐이겠어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 이미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웰빙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웰빙다이어트, 웰빙건강식품, 웰빙목욕제품, 웰빙아로마, 웰빙주방용품, 웰빙아파트, 하다못해 웰빙형 모기퇴치제까지...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통용되는 “웰빙”이 끼니 때 마다 건강유기농식품을 먹고, 저녁마다 명상과 요가를 하며, 주말마다 허브랜든나 온천을 찾아다니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좀 더 고차원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